

50년 예술혼의 고향, 양림동에 드리는 선물

28일 문 여는 양림동 한희원미술관

한희원(60) 작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자양분을 얻었던 양림마을에 작은 미술관을 마련하고 싶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문화향기 가득한 '양림정신'을 선물하고 싶어서였다. 그 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오는 28일 양림동에 한희원미술관(166-10번지)이 문을 연다.

개관을 앞두고 지난 19일 한희원미술관을 찾았다. 미술관은 이장우 가옥과 최승효 가옥 사이 골목길에 자리하고 있었다. 5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가옥을 개조해 만들어진 미술관은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잡아끈다. 건널 때마다 발판의 동그란 구멍에서 물이 솟는다고 해서 '뽕뽕다리'라 불렀던 아르방(건축용 철판)으로 미술관 대문을 만들었다.

자비 들어 전시실·무인카페 등으로 개조한옥 기둥·천장 그대로 고풍스런 멋 살려

문순태·조소혜·김현승·곽재구 등 배출 상업화에 물 들어가는 양림정신 지킬 것 28일부터 양림동 변화 담은 작품 개관전

문을 열고 들어서면 크고 작은 돌은 깔고 투명한 바닥재를 두텁게 입힌 마당이 작은 연못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100년이 넘는 오웬기념각 등 인근 근대건축물에서 빌려온 듯한 질은 화석벽돌로 장식된 한쪽 벽면에서는 양림동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다.

한 작가는 "이곳은 한희원이 양림동에 드리는 헌사와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옛 한옥의 나무 기둥과 천장 등을 그대로 살린 안쪽 공간은 고풍스런 멋과 세련미가 함께 공존했다. 미술관은 전시실과 작은 사무실 2개, 또 무인카페 등으로 공간이 구성됐다.

한 작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양림동으로 이사를 온 이후 학강초, 송일중·고(당시 양림동 소재), 조선대 미술대를 졸업할 때까지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양림동은 저에게 다른 의미의 고향입니다. 항상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술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순수하게 자비를 들어 미술관을 만든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양림동은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곳이다. '타오르는 강'의 소설가 문순태 선생과 '젊은이의 양지'를 쓰고(做) 조소혜 작가와는 담 사이에서 두고 살았었다.

"대학교 때 문 선생이 '징소리'를 발표하고 문단에 이름을 알리자 무작정 찾아가 차를 한잔 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인연이 돼 문 선생이 근작인 '타오르는 별'을 연재할 때 심화를 그렸었죠. 조 작가와는 전남매처럼 지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 작가가 제 작업실에서 1년 동안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곽재구 시인은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고, 다형 김현승 시인은 양림교회를 통해 알게 됐다. 한 작가는 대학생 때 양림교회 청년부 총무를 맡았었다. 당시는 양림교회가 서울의 명동성당과도 같이 정치적으로 치열했던 곳이었으며, 한 작가는 교회 지하실에서 민중미술계열의 대작 '기난한 사람들'(500x190cm)을 완성했다.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광주에 돌아온 작가는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양림동을 알리고 싶었다. 지난 2003년 남구문화회관 개관과 함께 양림동을 주제로 한 '거리에서 만난 문화와 미술'전을 기획했다. 한 작가는 당시 김현승, 이수복, 곽재구, 조소혜 등 문인들의

의 작품을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후 정윤성, 배동신, 이강하, 정추, 최흥중, 조아라 선생 등 양림동 인물 조명사업이 진행됐죠. 그걸 보면서 양림정신이 광주 정신의 모체가 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고자 시작한 것이 '굿모닝 양림'이죠."

한 작가는 첫회 행사 때부터 굿모닝 양림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들이 양림동에서 기획자와 공무원, 주민들의 손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쉬움도 있다. 담 건설로 고향을 잃어버린 수물민을 그린 문순태 선생의 '징소리'의 아픔이 양림동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수많은 자본이 양림동에 들어오면서 양림정신을 잃어버리고 상업화에 몰려들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제가 살았던 집도 무분별한 재개발로 포크레인에 짓밟혀버렸어요. 그때 고품들을 주위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그는 세 가지 바람과도 같은 원칙을 세웠다. 스스로 정의한 '사랑' '위로' '예술'의 양림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외부인들이 왔을 때 양림문화를 느끼면서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 또 많은 예술인들이 그걸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세월이 흘러도 양림동의 기본정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미술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인문학 모임과 강좌, 예술 강의, 전시 등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다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무인카페에서 외지 분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양림정신을 느꼈으면 해요. 잘못 된 변화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희원미술관이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마을 미술관에서 마을과 관계된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작가는 최근 7개월 동안 몸이 불편했던 탓에 붓을 들지 못했다. 그래서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개관전을 신작으로 전부 채우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개관전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양림동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도 채워진다. 문의 062-653-5435.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영화관서 즐기는 걸작 오페라



지난해 오스트리아 브레겐츠페스티벌에서 상연된 '마술피리'

메가박스 광주 브레겐츠·잘츠부르크 축제 생중계

세계 유명 음악 축제 현장을 생생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메가박스 광주는 올해도 브레겐츠 페스티벌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생중계한다.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보덴 호수에 설치한 웅장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야외 오페라 공연으로 이름이 높은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매 2년마다 신작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 2년간은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공연했다.

25일 오후 7시 생중계되는 작품은 푸치니의 '투란도트'다. 고대 전설시대 중국이 배경인 오페라 '투란도트'는 '라 보엠',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의 3대 명작으로 꼽힌다.

공주 투란도트는 자신에게 청혼하는 남자들에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실패하면 목을 치는 잔혹한 서약으로 많은 남자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주옥같은 아리아를

만날 수 있다. 지난 19일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천지창조'로 문을 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1920년부터 시작된 대표 음악 축제다.

8월 10일 상연되는 '피가로의 결혼'은 코믹 오페라 양식의 대표적 작품으로 거의 모든 배역이 주옥 같은 멜로디의 아리아를 불러 오페라 팬들에게 친숙하다. '이제는 날지 못하리',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등이 대표적이다.

14일 관객들을 만나는 '피델리오'는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다. 실화를 토대로 9년여간 다듬어 완성한 작품으로 최근 내한 공연을 가진 세계적인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출연한다.

라이브중계 전에 팸페라 가수 카이의 작품 해설이 함께한다. 예매는 메가박스 홈페이지(www.megabox.co.kr), 문의 1544-00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래된 한옥의 기둥들을 살린 전시 공간.



▶이장우 가옥과 최승효 가옥 사이 골목에 위치한 한희원미술관.

'광주시민인문학' 내달 16일까지 23기 강좌

실천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23기 강좌를 연다. 내달 16일까지 전년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강좌와 SEMI강좌로 나눠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한국문학, 철학, 일본문학, 음악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이진(국문학) 교수가 '현대소설, 다면체로 읽기Ⅲ'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화요일은 박주희(철학) 교수가 '존 듀이의 미적 경험과 예술 교육'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은 '베르그송, 결정론이 아닌 인간 자유의 존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

론스타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일문학)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싱글들의 인생 2라운드로 활용법', "클래식 음악"과 "친화하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SEMI강좌(토·일 오후 2시)는 '오타쿠 위리어의 무비토크 명화여 다시 한 번', '일상 자급자족프로젝트-연극, 콘서트, 미술, 스포츠 등을 체험하는 공간'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희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희원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